佛陀 열반지의 명당들

쿠시나가라에 있는 불타(佛陀) 열반지는 그의 말씀대로탄생지인 룸비니 동산, 성도지(成道地)인 보드가야의 금강보좌,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인 녹야원과 함께 4대 불적성지(四大佛蹟聖地)가 됐는데, 필자는 2004년 4월 4일 아침에 이곳을 심방했다.

불타가 바이샬리 부근의 벨루바마을에서 최후의 안거(安居)를 할 때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아난다 등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훈을 남겼다고 한다. 그는 "사람의 마음은 신도 되고 사람도 되며 악마나 귀신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정도(正道)를 행하라. 나는 지금껏 너희들을 위해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독(苦毒)의 나무를 변화시켜 감로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해 왔다.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며 다투지 말라. 나는 3개월 후에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나의 육신(肉身)은 가도 법신(法身)은 언제까지나 멸치 않으리니 앞으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유명한 유교경(遺敎經) 법문을 설했다.

생각건대 불타는 누구도 따르기 어려운 큰 도를 이루기도 했지만 이 같은 높은 이상과 인류 구원의 숭고한 열정이 후세 면면히 우리들을 크게 감동시켜 왔으며 그 큰 업적이 그를 세계 3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게 했다. 어떻든 유교경을 설한 뒤 얼마 후에 파바마을에서 대장장이 아들 춘다의 공양을 받고 병이 생겨 심한 복통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불타는 아난다에게 자기 고향인 쿠시나가라로 갈 것을 명했다. 아난다가 "왜 하필 이 작은 도시에서 열반에 들려 하십니까?"하고 물으니 불타는 자기가 전생(前生)에서 여섯 번이나 전륜성왕으로 났었으니 이곳이 자기 고향이며 이때문에 이곳에서 열반에 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한 후 불타의 뜻에 따라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 사이에 누이니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두 발을 포개어 누운 뒤 제자들에게 게으름 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다. 이때 아난다가 슬픔을 못 이겨 사라수 나뭇가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니 가까이 불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이별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상이다. 비록 내 육신은 다 할지라도 내가 설한 오묘한 진리의 몸만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다. 너는 오랫동안 자애로운 행동과 말과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 더없는 공덕을 쌓았다. 더 정진하라. 너도 머지않아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내가 열반한 뒤에는 내가 설했던 진리와 계율이 너희들의 스승이다"라고 말한 뒤 80세를 일기로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고 대열반경에 수록돼 있다.

불타 열반지에는 맨 앞 서쪽에 열반사가 있다. 그리고 5세기경에 조성됐다는 6.1m 크기의 불타 열반상이 봉안돼 있으며 그 동쪽 바로 뒷면에는 서기전 3세기경 아쇼카왕이 건립한 스투파가 있다. 현재는 이 스투파를 보호하기 위해 건립한 높이 45.7m의 거대한 돔이 있는데, 전설로는 이 아쇼카탑자리가 불타의 열반지라 한다. 또한 이 돔 뒤 동쪽에는 벽돌로 쌓아 올린 반달 모양의 아난다 사리탑이 자리해 있다. 위 열반지는 13세기 무슬림의 지배를 받을 때 모두 불타 폐허가 됐던 것을 1876년에 복원했고 1956년에 미얀마 승려들에 의해 재건되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현재 열반사에 안치된 열반상은 모래와 진흙으로 만들었고 침상격인 기단부에는 말리부인, 하리발마, 아난다의 인물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와불상은 마하비하라의 하리발마가 기부한 금으로 제작했다는 명문(銘文)이 쓰여 있다.

불타의 실제 열반지로 알려진 돔 안의 스투파 터는 준 특대 화기명당 자리이고 열반사 자리도 좋은 양기 명당 터이며 돔 뒤쪽의 아난다 사리탑 터도 좋은 화기 명당이니 이곳이 신성한 터전임을 입증하는 증좌라 할 것이다.

서광석
건설원가협회회장